

屏谷 權槩(1672-1749)의 주자학적 자연학과  
理法天觀: 18세기 전반 嶺南 南人系  
자연학의 一端

구 만 옥  
연세대학교

Kwon Gu's Natural Philosophy and World System

Koo Mhan Ock  
Yonsei University

ABSTRACT

Kwon Gu's numerology, natural philosophy and world system are analyzed. Kwon was an important scholar who represented the Yongnam Namin scholar group in the early 18th century. He believed that it is required to study *qi* 氣 in order to understand *li* 理 which has no form. Since *qi* consisted of form and number, he paid much attention to numerology (象數 *xiangshu*). His numerology however was based on Neo-Confucian philosophy and did not aim to cultivate new one. Kwon's conservative attitude was also illustrated in his natural philosophy. Even though he offered some new interpretations to explain eclipse, meteorology, the ebb and the flow, and the shadow in the moon, he did so since there were no orthodox theories in these questions. His world system therefore was based on the orthodox Neo-Confucian interpretations with a few modifications.

Key Words : Kwon Gu, Yongnam Namin, *xiangshu*, Neo-Confucianism

1. 머리말

조선후기 자연관·자연인식(또는 우주론)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몇몇 대표적 ‘실학자’-金錫文·李瀾·

徐命膺·黃胤錫·洪大容·丁若鏞·崔漢綺 등-의 저작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듯 이들은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야 학자로서 생애를 마감하였고, 학문적으로도 學派의 분립과 계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조선후기 학계의 중심에서 일정 정도 비껴서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조선후기 자연관·자연인식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學界·政界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정통 주자학자들의 사상 구조와 그 안에서 자연관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西人-老論系와 嶺南南人系 학자들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屏谷 權渠(1672-1749)의 象數學과 自然學에 대한 분석을 통해 嶺南南人系 학자들의 자연관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권구의 저작 가운데 일부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그가 남겨놓은 詩文과 「內政篇」, 「闡幽錄」, 「歷代沿革圖(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 등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sup>2)</sup> 「內政篇」은 권구가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婦人養德宜家之法’을 언문으로 작성한 것이고, 「歷代沿革圖」는 중국 제왕의 승계를 대통으로 삼고 北胡와 東國의 역사를 첨부한 일종의 ‘敦史(=惇史)’<sup>3)</sup>였으며, 「闡幽錄」은 당시 賤民들의 美行과 畜物의 異蹟을 기록하여 勸戒의 뜻을 보인 것이었다.<sup>4)</sup> 이러한 저작들은 권구의 사유체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18세기 당시 변화하는 사회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권구가 儒術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통 주자학자였다는 점에서<sup>5)</sup> 우선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은 그의 사상구조이다. 그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극히 단편적인 언급<sup>6)</sup>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수학과 자연학을 매개로 권구의 사상구조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영남계열의 象數學 연구와 자연학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학계에서 상수학이나 名物度數之學이 지니는 학문적 의미와 성과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상수학이나 名物度數之學이 객관 사물과 物理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기존의 心性論·禮論 위주의 학문 풍토를 극복하고 자연학에 대한 탐

1) 朝鮮後期 科學史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사 정리를 참조. 坂出祥伸, “韓國における科學史研究の現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朝鮮史研究會, 1994); 朴星來, “科學史”, 『歷史學報』 152 (歷史學會, 1996); 李成奎, “科學史”, 『歷史學報』 159 (1998); 文重亮, “科學史”, 『歷史學報』 163 (1999); 文重亮, “科學史”, 『歷史學報』 167 (2000); 김호, “해방 이후 ‘한국과학기술사’ 연구의 종합적 검토”, 『韓國學報』 103 (一志社, 2001).

2) 成炳禧, “屏谷先生の 內政篇”, 『安東文化』 3 (安東教育大學 安東文化研究所, 1973); 이종호, “병곡 권구의 「천유록 闡幽錄」을 통해 본 18세기 안동의 민중형상”, 『安東文化』 13 (1992); 孔勤植, “屏谷 權渠의 詩世界”, 『漢文學研究』 9 (啓明漢文學會, 1994); 朴仁鎬, “『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에 나타난 權渠의 역사인식”, 『朝鮮時代史學報』 4 (朝鮮時代史學會, 1998).

3) 『禮記集說大全』 卷12, 內則 第12, 32ㄴ[360쪽-영인본 『禮記』 (保景文化社, 1984)의 쪽수]. “五帝憲 養氣體而不乞言 有善則記之爲惇史 三王亦憲 既養老而后乞言 亦微其禮 皆有惇史”, 註: “惇史 所以記其惇厚之德也.”

4) 「行狀」, 『屏谷集』 卷9, 8ㄱ-ㄴ (188책, 157쪽-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又諺翻婦人養德宜家之法 以授婦女 名曰內政篇 又作歷代沿革圖 以中國帝王爲大統 而附以北胡 東國自檀君至于我朝 類其年代 別其分合 仍寓統屬與奪之例 井井有條緒 千古事蹟 舉目瞭然 便是一部敦史也 … 又著闡幽錄 凡當世賤流懿行畜物異蹟 隨手簡記 以寓勸戒之意”; 「家狀」, 『屏谷集』 續集, 卷3, 4ㄴ-5ㄱ(188책, 235-236쪽), 5ㄴ-6ㄱ(188책, 236쪽), 8ㄱ(188책, 237쪽).

5)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22ㄱ(188책, 180쪽). “嘗曰 道學久絕 雖有豪傑之人 出爲世用 建立功業 不知儒術 畢竟流弊 惟儒術無弊 …”

6) 劉明鍾, 『朝鮮後期 性理學』 (以文出版社, 1985), 268-270쪽.

구를 가능케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인다.<sup>7)</sup> 金錫文이나 徐命膺, 黃胤錫, 洪大容 등의 학문적 전개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수학이나 名物度數之學은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지향하는 학문적 목적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物理’ 탐구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의 상수학 연구는 經學과 인간학·도덕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상수학적 圖象을 통해 자연을 연역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자연에 대한 객관적·과학적·합리적 탐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성리학 내지 주자학에서도 ‘名物度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朱子는 五禮·六樂·五射·五御·六書·九數 등을 六藝의 세목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은 명물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극한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에 마음을 두면 ‘物理’에 통달하게 되고 세상의 용도에 두루 알맞게 되며, 거기에 침잠하는 사이에 잘못된 마음이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물론 이러한 六藝는 道·德·仁에 비하면 그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sup>9)</sup> 그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상수학이나 名物度數之學이 차지하는 사상사적 위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수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상수학과 자연학의 상호 관련성 여부, 주자학적 상수학과 차별성, 나아가 학과별 상수학의 동이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영남계 학자들의 자연학 내지 자연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후기 ‘嶺南’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이 부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0)</sup> 따라서 이 글의 시도는 조선후기 과학사·과학사상사의 연구 대상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실학 연구가 近畿南人系-柳馨遠·李瀾·丁若鏞-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들과 學淵을 공유하면서도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달리했던 ‘嶺南’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정통 주자학자들의 자연인식에 접근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嶺南’ 상수학의 계승

屏谷 權渠(1672-1749)는 조선후기 嶺南의 학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成宗朝의 명신이었던 權柱(號 花山)의 7세손으로 安東을 대표하는 名門大族 출신

7)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一志社, 1995), 82-86쪽, 117-124쪽 참조.

8) 『論語或問』卷7, 述而, 4ㄱ-ㄴ[118쪽-영인본 『四書或問』(保景文化社, 1986)의 쪽수. 이하 같음]. “敢問六藝之目 與所以游之之說 曰 五禮 吉·凶·賓·軍·嘉也 六樂 雲門·大咸·大韶·大夏·大濩·大武也 五射 白矢·參連·剡注·襄尺·井儀也 五御 鳴和鸞·逐水曲·過君表·舞交衢·逐禽左也 六書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也 九數 方田·粟米·差分·少廣·商功·均輸·方程·贏不足·旁要也 是其名物度數 皆有至理存焉 又皆人所日用而不可無者 游心於此 則可以盡乎物理 周於世用 而其雍容涵泳之間 非僻之心 亦無自而入之也”

9) 같은 책, 4ㄴ-5ㄱ(118-119쪽). “以先後之次言之 則志道而後德可據 據德而後仁可依 依仁而後藝可游”

10) 이른바 ‘嶺南學派’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를 참조할 수 있다. 朝鮮後期 嶺南에 대한 기존의 사상사 연구는 이른바 ‘退溪學派’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琴章泰, 『退溪學派의 思想』Ⅰ·Ⅱ(集文堂, 1996/2001); 『退溪學派와 理學의 전개』(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등을 참조.

이었다. 일찍이 권구는 ‘戊申亂’의 주역인 李麟佐와 먼식이 있었고, ‘무신란’ 당시 李能佐(李熊輔) 등과 변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 받아 서울로 압송되어 鞫問을 당하기도 하였다.<sup>11)</sup> 비록 英祖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sup>12)</sup> 이후에도 그가 변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확신하는 노론측의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sup>13)</sup> 이처럼 권구가 ‘무신란’ 주역들의 포섭 대상이었고, 변란 이후에도 반대 당파의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남, 특히 안동 지역에서 권구가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권구는 영조 초년 慶州의 崔光斗, 善山의 李燾와 더불어 영남의 명망 있는 선비로 거론되고 있었다.<sup>14)</sup>

권구는 가계상으로는 柳元之(1598-1674)와 李玄逸(1627-1704)의 가문에 연결되고, 학통상으로는 이현일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母系를 통해 豐山 柳氏 계열의 학맥과 연결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유원지의 딸이었다.<sup>15)</sup> 권구는 일찍이 이현일에게 사사하였고, 李栽(1657-1730) 등과도 중유하였다.<sup>16)</sup> 그가 이현일의 둘째 아들로 李徽逸의 후사가 되었던 李穡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도 이런 학문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sup>17)</sup> 그러나 그가 이현일에게서 사사받은 것은 이현일의 말년에, 그것도 이현일이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유배 중이던 때였다.<sup>18)</sup> 이현일은 ‘己巳換局’(1689, 숙종 15) 이후 남인정권의 山林으로 徵召되어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다 ‘甲戌換局’(1694, 숙종 20) 이후 ‘名義罪人’으로 낙인찍혀 洪原·鍾城·光陽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가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74세 때인 1700년(숙종 26)이었다.<sup>19)</sup> 따라서 권구의 학문에 끼친 이

11) 『英祖實錄』卷17, 英祖 4년 4월 11일(辛卯), 14ㄴ-15ㄴ[42책, 41-42쪽-영인본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1970)의 책수와 쪽수. 이하 같음]. 權渠(權煦)의 供招; 『英祖實錄』卷17, 英祖 4년 4월 16일(丙申), 22ㄴ-23ㄴ[42책, 45-46쪽]. 曹世樞의 供招; 『戊申錄』, 『屏谷集』卷7, 13ㄱ-16ㄴ(188책, 120-122쪽).

12) 『英祖實錄』卷17, 英祖 4년 4월 11일(辛卯), 15ㄱ-ㄴ(42책, 42쪽).

13) 『英祖實錄』卷25, 英祖 6년 2월 11일(庚戌), 9ㄴ(42책, 187쪽). 權贊의 상소; 『正祖實錄』卷26, 正祖 12년 11월 10일(戊辰), 26ㄴ(46책, 13쪽).

14) 『英祖實錄』卷29, 英祖 7년 4월 16일(戊申), 21ㄴ(42책, 253쪽)

15) 「行狀」, 『屏谷集』卷9, 1ㄴ(188책, 154쪽). “妣宜人豐山柳氏 縣監拙齋先生諱元之之女 領議政豐原府院君西厓先生諱成龍之曾孫也”; 「家狀」, 『屏谷集』續集, 卷3, 1ㄴ(188책, 234쪽). 이런 연유로 權渠의 문집은 外孫 柳一春에 의해 安東의 屏山書院에서 간행되었다[「識」, 『屏谷集』卷10, 附錄, 26ㄱ-ㄴ(188책, 182쪽)].

16) 「行狀」, 『屏谷集』卷9, 2ㄴ(188책, 154쪽). “既冠 出入葛菴李先生之門 親承旨訣 退而與密菴諸公 更相切磋 見聞益富 而妙契深造之功 自得爲多”; 「家狀」, 『屏谷集』續集, 卷3, 3ㄴ(188책, 235쪽).

17) 「行狀」, 『屏谷集』卷9, 5ㄴ(188책, 156쪽). “配載寧李氏 考諱 穡 卽葛庵先生諱玄逸之次子 而出爲存齋先生諱徽逸之後”

18) 「詳記謹書」, 『屏谷集』卷9, 12ㄱ-ㄴ(188책, 159쪽). “是年(1690년 肅宗 16- 인용자)聘海上葛庵李先生孫女也 … 時先生(李玄逸- 인용자) 僱勉赴召繼而罹 擯者多年 故未克朝夕於門屏 而授受之端的 比他及門諸公 尤有所親切者焉”

19) 李玄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劉明鍾, 『朝鮮後期 性理學』(以文出版社, 1982), 242-252쪽; 이에회, “이현일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서광사, 1992); 정호훈, “17세기 후반 영남남인학자의 사상-이현일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琴章泰, “葛菴 李玄逸의 인물과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 I (集文堂, 1996); 김학수, “葛庵 李玄逸 研究-政治活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4 (1998).

현일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그의 학문적 성과는 嶺南의 학풍 속에서 선배·동료들과의 토론을 거쳐 ‘自得’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0)</sup>

권구는 農·工·商·賈로부터 百家의 技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古人이 남겨놓은 방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전제하였다. 그러한 전제로부터 각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古人의 遺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연역해냈다.<sup>21)</sup> 그렇다면 선비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古人遺方’은 무엇인가? 권구가 보기에 선비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학·도덕학·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四書六經은 선비들의 방법이 된다.<sup>22)</sup> 권구는 그 가운데서도 『大學』, 『中庸』, 『周易』을 중요시하였다. 『대학』은 학문의 사다리[階梯]이고, 『중용』은 핵심[總腦]이며, 『주역』은 근본[本源]이라고 했다. 따라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으로 시작하여 진리를 향한 좁은 길을 어지럽지 않게 한 다음 『중용』과 『주역』으로 會通(融會)하여 의리가 밝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군자의 학문은 모름지기 근원을 소급하고 관건을 열어 ‘자득’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sup>24)</sup> 『대학』, 『중용』, 『주역』을 중시하는 권구의 학문적인 태도는 「大學就正錄」, 「中庸就正錄」, 「讀易瑣義」라는 저술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러한 저술이 ‘자득’의 결과물이라고 자부하였다.<sup>25)</sup>

여기서 잠시 권구가 강조하는 ‘자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득’이라 하면 학자가 자신의 창조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득’을 강조하는 논자들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권구가 말하는 ‘자득’은 그러한 맥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經學에서 ‘자득’이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경전의 해석에서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종래와는 다른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이다.<sup>26)</sup> 다른 하나는 경전에 내포된 성현들의 本旨를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이다. 예컨대 경전의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공부를 통해 朱子를 비롯한 先賢들의 정론과 합치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자학자들이 말하는 ‘자득’이란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권구는 경전을 탐구하는 데서 ‘자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였다.<sup>27)</sup> 그가 학문에서 ‘자득’의 중요함을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sup>28)</sup> 권구가 경전을 읽는 방법은 일단 經文을 보고 주석을 보지 않는

20) 주 16) 참조.

21) 「與金振伯壬戌」, 『屏谷集』 卷3, 11ㄴ(188책, 43쪽). “大抵自農工商賈 以至百家衆技 莫不各有其事 而亦莫不有古人遺方 爲其事而不以其方 可乎”

22) 같은 글, 11ㄴ(188책, 43쪽). “士者所以主爲人之事 而四書六經其方”

23) 같은 글, 11ㄴ-12ㄱ(188책, 43쪽). “然大學其階梯也 中庸其總腦也 周易其本源也 若不始之以大學 使蹊逕不亂 會之以二書 使義理昭著 則其所謂學者 徒爲口耳之末習”

24) 같은 글, 12ㄱ(188책, 43쪽). “故君子之學 必欲沿流溯源 開關啓鍵 有以自得於中而後已者 此也”

25) 「實錄記略」, 『屏谷集』 卷10, 附錄, 1ㄴ(188책, 170쪽). “於諸經奧旨 必求心解融釋 有所自得於言外者 輒書冊子 以備遺忘 若就正錄·瑣義等篇 是也”;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21ㄱ(188책, 180쪽). “問 所作象數諸圖 易中疑義 是前人發底 是未發底 曰 這皆古人所未發 隨得說出 不欲爲架屋說”

26) 一例로 權渠의 학문적 전통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柳成龍의 독서법을 들 수 있다. 「讀書法」, 『西厓集』 卷15, 15ㄴ(52책, 294쪽). “凡讀書 不可先看註解 且將經文反覆而詳味之 待自家有新意 卻以註解參校 庶乎經意昭然 而不爲他說所蔽 若先看註解 則被其說橫吾胸中 自家竟無新意矣”

27) 「詳記謹書」, 『屏谷集』 卷9, 附錄, 22ㄴ(188책, 164쪽). “嘗曰 窮經當以自得爲貴 若依人口 說來說去 於自己不干事”

것이였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가 섰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주석을 보았다. 만약 주석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생각하여 그것과 자신의 견해가 합치되기를 추구하였다.<sup>29)</sup> 이는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수립하는 ‘자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였다. 또 그가 보는 주석 역시 주자의 집주에 국한되었고, 그 이외의 주석을 보는 것은 穿鑿이라고 비판하였다.<sup>30)</sup> 학문이란 성현의 일을 본받는 것이라는 권구의 견해는<sup>31)</sup>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성현의 말씀과 자신의 견해를 합치시키려는 학문론의 귀결이였다.

권구는 초학의 단계에서 天文·算數·卜筮·師律 등의 이른바 雜學에 관심을 두어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었다. 후에 학문의 本末·緩急의 次序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六經·四書의 세계에 침잠하였지만, 초년의 학문적 관심이 이후 그의 六經·四書學 연구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32)</sup> 그가 영남 계열의 다른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학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지적 편력에 기인한 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권구는 영남 상수학의 양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현일 계열과 유원지 계열의 학문적 성과를<sup>33)</sup>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상수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4)</sup>

권구가 본격적으로 易學을 탐구한 것은 屏山에 우거하기 시작한 1716년(숙종 42) 이후였으며, 그 성과물이 「讀易瑣義」와 「二五交感圖」, 「歷代沿革圖」 등이였다.<sup>35)</sup> “천하의 사물은 數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 이치가 易이다”<sup>36)</sup>라는 언급은 易學과 상수학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數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四肢와 九竅, 꽃잎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눈의 결정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등은 그 구체적인 예였다.<sup>37)</sup>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금수의 털이나 머리카락, 초목의 줄기와 잎, 먼지와 같은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數가 아

28) 「實錄記略」, 『屏谷集』 卷10, 附錄, 5 ㄱ(188책, 172쪽). “學貴自得”

29) 「詳記謹書」, 『屏谷集』 卷9, 附錄, 22 ㄱ-ㄴ(188책, 164쪽). “讀經 未嘗遽看註脚 只就經文玩索 句探其義 字求其訓 反復游泳 使大義了然 然後始反而質之于註脚 如有未契 則更致其思 以求其必合”

30) 같은 글, 22 ㄴ(188책, 164쪽). “又曰 讀經者 於輯註外 不可傍穿孔穴”; 같은 글, 23 ㄱ-ㄴ(188책, 165쪽). “至程朱作而後 始支分縷析 明白昭陳 豈非大幸”

31) 「實錄記略」, 『屏谷集』 卷10, 附錄, 4 ㄴ(188책, 171쪽). “學之爲言 效也 效聖賢之事也”

32) 「行狀」, 『屏谷集』 卷9, 1 ㄴ(188책, 154쪽); 「家狀」, 『屏谷集』 續集, 卷3, 2 ㄱ(188책, 234쪽). “自年十三四時 慨然有經世大志 嘗曰 一物不通 是余之耻也 於是汎濫 羣書 天文 算數 卜筮 師律之流 并皆旁治而默會其要領 既而審知本末緩急自有其序 乃專意于六經四子及洛建諸書 更不看外家雜書”

33) ‘嶺南’ 계열의 易學·象數學 연구의 경향에 대해서는 具萬玉, “朝鮮後期 朱子學的 宇宙論의 變動”, (延世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1), 186-200 쪽 참조

34) 象數學의 측면에서는 外家人 豐山 柳氏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권구는 이현일과 유원지의 논란에 대한 논평에서 張興孝의 「一元消長圖」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현일이 초년에는 장홍효의 주장을 옳게 여겼지만, 만년에는 유원지의 비판을 바른 것으로 여겼다고 증언하였다[「慕山瑣錄」, 『屏谷集』 卷10, 20 ㄱ-ㄴ(188책, 179쪽). “先生論敬堂一元消長圖曰 … 葛庵初亦是之 晚以拙齋所辨爲是”].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장홍효의 「一元消長圖」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유원지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주론을 가능케 한다. 유원지의 상수학을 ‘前人未發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도 그 일환이였다고 여겨진다 [같은 글, 22 ㄱ(188책, 180쪽). “仍示集中象數小說 論奇耦升降成卦之妙曰 此前人所未發”].

35) 「行狀」, 『屏谷集』 卷9, 7 ㄴ(188책, 157쪽); 「家狀」, 『屏谷集』 續集, 卷3, 5 ㄱ-ㄴ(188책, 236쪽).

36) 「讀易瑣義」, 『屏谷集』 卷5, 1 ㄱ(188책, 76쪽). “蓋天下萬事萬物 無非數 而其理則易也”; 「行狀」, 『屏谷集』 續集, 卷3, 5 ㄱ(188책, 236쪽). “喜讀周易曰 蓋天下事物 無非數 而其理則易也”

님이 없다고 하였다.<sup>38)</sup> 권구는 이러한 각종 數 가운데 가장 신령스럽고 분명한 것이 河圖와 洛書라고 주장하였다.<sup>39)</sup> 『周易』의 이치로 표상되는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數를 통해 구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권구는 이치는 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만 數는 궁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0)</sup>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理氣論의 문제, 理學과 氣學(상수학)의 상호 관련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무한한 太虛 가운데 形質을 갖추고 있어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氣였다. 이 氣가 홀연히 모이면 有가 되고 홀연히 흩어지면 無가 된다. 이와 같은 무궁한 聚散과 섬 없는 氣化작용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재하는 ‘형질이 없는 것[無形質者]’이 있다. 형질이 있는 것은 그 형질로 인해서 소멸에 이르지만 형질이 없는 것은 항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氣에는 聚散이 있으나 理에는 有無가 없는 까닭이었다.<sup>41)</sup>

이와 같은 理氣論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변적인 상수나 氣의 탐구가 아니라 불변하는 理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권구의 언급은 그의 상수학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晝夜의 왕래와 사계절[四時]의 순환은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인가. 天地는 하나의 四時이고 四時は 하나의 晝夜이다. 길고 짧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본래 하나의 이치[一理]이다. 진실로 晝夜가 晝夜가 되고, 四時가 四時가 되는 이치를 안다면 易이 易이 되는 이치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권구가 지향하는 학문의 최종 목적은 理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理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理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취가 있어서 알아보기 쉬운 氣를 통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sup>43)</sup> 그런데 氣로 이루어진 사물은 形象과 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수학이 필수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以氣明道’<sup>44)</sup>가 바로 그것이었다.

권구의 상수학이 지닌 특징[‘以氣明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는 ‘氣學’과 ‘理學’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권구가 「二五交感圖」를 작성하였을 때 李裁는 이것을 가리켜 ‘氣學’이라고 지목한 바 있었다.<sup>45)</sup> 이처럼 당시에는 氣化를 위주로 말하면 ‘기학’으로

37) 「讀易瑣義」, 『屏谷集』 卷5, 11ㄴ(188책, 81쪽). “天地之間 有自然之數 無物不著 人之四肢九竅 花五雪六之類可見”

38) 같은 글, 11ㄴ-12ㄱ(188책, 81쪽). “盈於天地之間者 皆數也 如人獸之一髮一毛 草木之一莖一葉 以至一塵之微 何莫非數也”

39) 같은 글, 11ㄴ(188책, 81쪽). “河圖洛書 乃其最靈最著者也”

40) 같은 글, 11ㄴ(188책, 81쪽). “易之理 因數而明 然理可測而數不可窮”

41) 같은 글, 13ㄱ(188책, 82쪽). “太虛無垠 凡有形質可見可接者 皆氣也 此氣忽然聚而有 忽然散而無 聚散無窮 化化不息者 其必有無形質者爲之主宰也 有形質者 有而歸盡 無形質者 無而常有 此所以氣有聚散而理無有無也”

42) 같은 글, 15ㄴ-16ㄱ(188책, 83쪽). “晝夜之去來 四時之循環 是孰使之然 天地一四時 四時一晝夜 久暫雖殊 本自一理 苟知晝夜之所以爲晝夜 四時之所以爲四時 則易之爲易 蓋可知矣”

43) 같은 글, 1ㄱ(188책, 76쪽). “理只是氣之所以然 然理無象而氣有迹 無象者難見 有迹者可知 故必因其可知者 推得難見者 然後始有箇頭緒可尋”;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21ㄱ(188책, 180쪽). “又曰 余作二五圖 密翁謂爲氣學 理無形 氣有形 從有形底 求無形底 方可知 余作是圖 亦以是耳”

44) 「讀易瑣義」, 『屏谷集』 卷5, 1ㄱ(188책, 76쪽). “程子所謂以氣明道”

45)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21ㄱ(188책, 180쪽). “又曰 余作二五圖 密翁謂爲氣學”

지목당하는 사례가 있었다.<sup>46)</sup> 그러나 권구는 결코 자신의 학문을 ‘기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의 중심에는 理學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구가 생각하기에 理란 形象·聲臭·情意·造作이 없는 것이지만 기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화의 ‘所以然’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up>47)</sup>

요컨대 권구의 상수학이 ‘氣化’와 ‘形化’를 위주로 한 현상세계의 문제를 탐구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학문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의 세계였다. 그가 『中庸』 首章에 대한 주자의 주석인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을 근거로 상수의 배후에 자리한 所以然까지 파악해야만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sup>48)</sup> 陰陽五行으로 대변되는 현상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자리한 所以然으로서의 理까지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上面의 所以然을 아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파악하는 권구가 볼 때<sup>49)</sup> 기존의 불교·노장학을 비롯한 ‘기학’은 氣化의 所能然만 알고 所以然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sup>50)</sup> 그것은 體用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用만 보고 體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sup>51)</sup>

이와 같은 권구의 학문관은 ‘格物’ 공부의 의미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확실한 형태로 드러난다. 권구는 格物보다 앞서는 공부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心性공부였다.<sup>52)</sup> 상수학이나 자연학보다 심성론이나 인간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구의 상수학은 朱子の 그것을 충실히 계승하고 부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는 주자를 聖人으로 간주하면서 그 註釋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53)</sup> 그것은 상수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구는 주자의 『易學啓蒙』을 중심으로 상수학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일찍이 韓百謙(1552-1615)은 주자가 『易學啓蒙』에서 제시한 撰蓍法에 대하여 일곱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변통할 수 있는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sup>54)</sup> 이에 대해 권구는 『역학계몽』이 주자가 평생토록 정력을 바친 책으로 의리에 밝혀지지 않은 바가 없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백겸의 주장을 大義에 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55)</sup> 권구는 한백

46) 같은 글, 9ㄴ(188책, 174쪽). “曰 今人開口 纔說氣化 便目爲氣學 易有卦爻 從有形象底 畫出來 亦可目爲氣學耶”

47) 같은 글, 9ㄴ(188책, 174쪽). “理無形象·無聲臭·無情意·無造作 而氣化之根本 須看氣化所以然是何物”

48) 같은 글, 8ㄴ-9ㄱ(188책, 173-174쪽). “因談氣化 語安行敏曰 汝方讀中庸 如首章註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只略知這言句 不曾尋究所以然之故 以此不知這物事爲如何 如了得此註之義 餘可推知 凡看象數 透得一重 又有一重 直須透得盡 方知所以然如何 始知吹萬皆從這箇流出來”

49) 같은 글, 12ㄱ(188책, 175쪽). “然須知上面所以然 觀會通以行 始得這物事”

50) 같은 글, 19ㄱ-ㄴ(188책, 179쪽). “佛老及凡爲氣學者 亦不無所見 然但見得氣化之所能然 不見其所以然”

51) 같은 글, 8ㄱ(188책, 173쪽). “憲問所以然·所必然·所當然·所能然之別 曰如以體用言 所以然·所必然 從體上說 所當然·所能然 從用上說”

52) 같은 글, 10ㄴ(188책, 174쪽). “嘗曰 格物是第二件事 問格物最初工夫 何以曰第二件事 曰更有心性工夫在”

53) 같은 글, 16ㄱ(188책, 177쪽). “朱子真是聖人 註解平常的當 不可移易”

54) 『啓蒙撰蓍辨』, 『久菴遺稿』上, 23ㄴ-27ㄴ(59책, 169-171쪽).

검의 주장이 이미 편벽된 곳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타의 주장 역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주자의 ‘已定之說’이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구는 한백검과 같이 경전을 해석하는 태도를 “私見을 위주로 하여 달리 門戶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비판하였다.<sup>56)</sup>

이러한 평가는 결국 한백검의 학문이 ‘義理’라는 문제에 투철하지 못하여 절목에서는 상세하지만 학문의 근본에는 밝지 못하다는 전반적인 비평으로 연결되었다.<sup>57)</sup> 그것은 결국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西人-老論 계열의 학자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주자의 학문과 사상을 절대시한 결과였다. 그의 사상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尊周論的 역사의식과 우리나라를 ‘海外一中華’로 간주하는 小中華 의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58)</sup> 요컨대 嶺南 계열의 상수학은 주자의 그것을 골간으로 李滉 이래의 상수학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계열 사이에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상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서는 주자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소외 상태에서 수행된 영남의 상수학 연구가 현상 타개의 적극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고, 종래의 상수학적 내용을 自然의 法象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침잠하는 소극적·퇴행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 3. 주자학적 자연학에 대한 검토와 변주

전근대 시기 자연학에 대한 논의는 기왕의 서적에 수록된 자연학 관련 논의를 전제로 지식인들의 개인적 관찰과 사색, 그리고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기존의 텍스트를 대하는 학문적 자세, 관찰의 세심함, 사색의 폭과 깊이, 토론의 진지함에 따라 논의의 수준이 결정되기 쉽다. 그것은 유교·주자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조선 후기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性理大全』,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각종 자연현상에 대한 선현들의 논의를 숙지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관찰과 사색을 거쳐 자기 나름의 견해를 수립하였으며, 선배·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논리를 세련화시켜 나갔다. 주자학적 상수학과 자연학을 기반으로 전개된 권구의 자연학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되었을까?

55) 「韓久庵撰著辨疑義」, 『屏谷集』 卷6, 29ㄴ(188책, 109쪽). “然朱夫子一生精力 尤在此書 折衷羣言 闡微正訛 莫不有自然法象 豈去就之際 理有所未明 文字之間 義有所未察也 今韓說 宛轉說去 義亦粗通 然恐有見於名目分數之間 而未及融會於大義所關也” 이러한 평가는 韓百謙의 논의 역시 經文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尹鑑의 입장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漫筆下」, 『白湖全書』 卷 27, 1174-1175 쪽[『白湖全書』(慶北大學校 出版部, 1974)의 쪽수. 이하 같음].

56) 「韓久庵撰著辨疑義」, 『屏谷集』 卷6, 30ㄱ-ㄴ(188책, 109쪽). “所見既有偏主 故自餘諸說 亦多差謬 使朱夫子已定之說 無一完存 看書解義 恐不可如是自主私見 必求別立門戶也”

57) 같은 글, 32ㄴ(188책, 110쪽). “大抵韓公之學 初無浸灌義理之工 而多出於強探力索 故其發爲議論者 明白剴切 往往有至到處 而亦無餘味可咀嚼 又論理不如論事 節目雖詳 大原未甚明了 不但此一篇爲可疑而已”

58) 「麗史彙纂疑義」, 『屏谷集』 卷6, 33ㄴ-35ㄱ(188책, 111-112쪽).

## 1) 歲差·月中黑影·潮汐

권구는 金德五(1680-1748)와의 문답을 통해 전통적으로 우주론과 관련하여 다루어 왔던 여러 주제, 예컨대 朞三百·歲差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sup>59)</sup> 朞三百과 璿璣玉衡에 대한 별도의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sup>60)</sup> ‘月中黑影’·潮汐 등 자연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였다.<sup>61)</sup> 그 가운데 朞三百과 선기옥형에 대한 일련의 논문은 “일찍이 선기옥형의 제도를 손으로 만들고 蔡氏傳에 註를 달아 그것을 해석하였다”<sup>62)</sup> 라는 전언에서 알 수 있듯이 『書傳』 주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歲差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구는 세차의 원리를 『서전』의 주석에 근거하여 설명하면서, 세차치를 일정하게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sup>63)</sup> 일찍이 김덕오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권구는 주자의 말을 방증으로 삼아 일정한 세차치의 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늘이 태양보다 앞서 나가는 수치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추산해서 일정하게 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주자를 비롯한 先儒들 역시 일찍이 배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64)</sup> 이는 虞喜 이래 역대의 세차치가 정밀하지 못하다는 『서전』의 주석과 주자의 견해를 묵수한 결과였다.<sup>65)</sup>

종래의 논의에서는 ‘月中黑影’을 땅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자는 이에 대해 그것은 땅의 그림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어떤 사람이 “月中黑影은 땅의 그림자가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이전의 학자들에게 그

59) 「答金(士一)德五論朞三百」, 『屏谷集』 卷3, 25ㄴ-28ㄱ(188책, 50-51쪽). 金德五의 문집인 『癡軒集』(193책)에는 이와 관련한 편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60) 「朞三百註解」, 『屏谷集』 卷5, 32ㄴ-34ㄴ(188책, 91-92쪽); 「璿璣註解」, 『屏谷集』 卷5, 34ㄴ-37ㄱ(188책, 92-94쪽); 「雙環說」, 『屏谷集』 續集, 卷2, 14ㄱ-16ㄱ(188책, 216-217쪽).

61) 「謾錄」, 『屏谷集』 卷6, 8ㄴ-9ㄱ(188책, 98-99쪽).

62) 「詳記謹書」, 『屏谷集』 卷9, 附錄, 24ㄱ(188책, 165쪽). “嘗手造璿衡制度 爲註蔡氏傳以釋之”

63)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10ㄱ(188책, 174쪽). “問歲差之說 曰 此難知 天平運而舒 日內轉而縮 大約積幾年 似爲幾分而已 頃見金德五推算排定 其分數 非也 天行過日處 餘分極微 瑣 自先儒諸家 皆不得推算排定 如何排定得”

64) 「答金(士一)德五論朞三百」, 『屏谷集』 卷3, 27ㄴ-28ㄱ(188책, 51쪽). “歲差 天道平運而舒 日道內轉而縮 天道較寬 日道較窄 日行恰周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時差犯 卻天 過地一度內 天道向西積漸成分 日道向東積漸成分 而太虛中微忽之分 本不可限定 故各以其時所占候 定其大略 不然 豈有五十年百年相去若是不相近乎 朱子之言 亦於其間 參以彼此 以定大略 若欲立定年數分數 恐近穿鑿也 未知如何”

65) 『書傳』, 虞書, 堯典, “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 星昴 以正仲冬 厥民 隩 鳥獸 氄毛”의 註; 『朱熹集』 卷65, 尙書, 虞書, 堯典, 3411-3412쪽(點校本 『朱熹集』 (四天教育出版社, 1996)의 쪽수. 이하 같음). “又按堯冬至日在虛昏中昴 今日在斗昏中壁 而中星古今不同者 蓋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天度四分之一而有餘 歲日四分之一而不足 故天度常平運而舒 日運常內轉而縮 天漸差而西 歲漸差而東 此卽歲差之由 唐一行所謂歲差者 日與黃道俱差者是也 古曆簡易 未立差法 但隨時占候修改 以與天合 至東晉虞喜 始以天爲天 以歲爲歲 乃立差法 以追其變 約以五十年退一度 何承天以爲太過 乃倍其年 而又反不及 至隋劉焯 取二家中數爲七十五年 蓋爲近之 而亦未爲精密也”

러한 학설이 있었는데, 살펴보니 이치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땅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것은 땅의 형체가 도리어 달의 빛을 막은 것이다. 마치 거울 속에 어떤 것이 그 빛을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대개 해는 그 빛을 달의 몸체에 비추지만 가운데 땅은 하나의 실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검은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였다.<sup>66)</sup>

권구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첫째, 만약 땅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이라면 달이 東西로 이동함에 따라 黑影의 모양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月出과 月入의 正照斜照에 관계없이 모양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땅이 가운데 있는 실물이라면 그 비추이는 그림자가 ‘圓黑’으로 뒤섞이는 곳이 없을 터인데, 실제로 달을 보면 정확하게 검은 곳과 희미한 곳,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아침 무렵에 해와 달이 동시에 지상에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달의 흑영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sup>67)</sup>

권구는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그것은 陰陽說로 ‘月中黑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권구가 보기에 태양은 陽德이며, 달은 陰靈이었다. 따라서 陽이 맑고 陰이 탁한 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움이었다. 달은 태음의 정수로 質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맑을 수 없으며, 햇빛을 받아 비출 때에도 완전하게 광명한 곳도 있고 빛을 완전히 비추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sup>68)</sup> 요컨대 ‘月中黑影’은 지구의 그림자나 지형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陰質로서의 달의 본성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권구의 潮汐說 역시 음양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는 물과 달이 모두 음이 왕성한 사물[陰之至盛者]이기 때문에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潮水의 진퇴는 月出과 月入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석시간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초하루의 潮水 시각과 보름의 汐水 시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조석설에 대한 방증으로 거론하였다.<sup>69)</sup>

그런데 당시 嶺南의 지적 풍토 속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견해 표명조차 쉽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李裁는 1721년(景宗 1) 권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의 주장들이 ‘新奇’한 것이고 ‘苦心力索’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sup>70)</sup> 이미 朱子의 定論이 있으므로 천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재는 먼저 ‘월중흑영’에 대해 『성리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주자의 견해<sup>71)</sup>를 제시하면서 삼가 이 학설을 고수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66) 『朱子語類』卷2, 理氣下, 天地下, 20-21쪽. “或問 月中黑影是地影否 曰 前輩有此說 看來理或有之 然非地影 乃是地形倒去遮了他光耳 如鏡子中被一物遮住其光 故不甚見也 蓋日以其光加月之魄 中間地是一塊實底物事 故光照不透而有此黑暈也”

67) 「謾錄」, 『屏谷集』卷6, 8ㄴ(188책, 98쪽). “月中黑影 先儒以爲地影所射 如鏡子中一物遮住 然以所見驗之多不應何也 若是地形所射 似當隨東西 變其形樣 而月之出於東入於西 正照斜照 無不皆然 且地在中間 爲一塊實底物 射去之影 正當圓黑 無錯落處 而今看有正黑處 有熹微處 有點點處 又如朝晝之間 日月俱在地上 而其影尤分明 此俱可疑”

68) 같은 글, 8ㄴ(188책, 98쪽). “嘗以是推之 日以陽德 月以陰靈 則陽清陰濁 亦理之自然也 月既以太陰之精成質 則不能粹然清瑩 其受日光也 有徹底光明處 有光不盡透處 正如明珠之有瑕翳故也”

69) 같은 글, 9ㄴ(188책, 99쪽). “潮汐水 先儒之論備矣 抑有可備一說者 蓋水與月 皆陰之至盛者 故自有相感之理 潮之進退 以月出月入爲限 朔之潮爲望之汐 望之汐爲朔之潮 可見”

70) 「答權方叔辛丑別紙」, 『密菴集』卷6, 5ㄱ-ㄴ(173책, 125쪽). “所論極新奇可喜 … 所論非苦心力索 未易到此 …”

71) 『性理大全』卷27, 理氣 2, 天文, 日月, 3ㄴ[1832쪽-영인본 『性理大全』(山東友誼書社, 1989)의 쪽수. 이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sup>72)</sup> 조석설에 대해서도 이재는 余靖(1000-1064)의 조석설이 가장 상세하다고 인정한 주자의 주장과 한백겸의 조석설을 거론하면서 권구의 조석설은 억지로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sup>73)</sup>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권구는 자연을 해석하는 기본 틀로 음양오행설을 이용하였다. 그것은 조선시기 대부분의 儒者들이 애용하던 방식이었다.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성리대전』에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74)</sup> 권구의 음양설에 입각한 자연 해석은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氣象學

음양설에 입각한 기상 현상에 대한 설명은 『大戴禮記』가 전형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sup>75)</sup> 그것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된 것이 張載의 『正蒙』이었고,<sup>76)</sup> 주자의 기상학은 여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sup>77)</sup> 그 주에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陽氣가 바로 상승하여 갑자기 陰氣와 만나면 서로 버티다가 아래로 떨어져 비가 된다. 무릇 陽氣는 가볍고 陰氣는 무겁기 때문에 陽氣가 陰氣에 눌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陰氣가 바로 상승하여 갑자기 陽氣와 만나면 그것의 도움을 받아 위로 날아 올라가 구름이 된다. 陽氣가 陰氣의 안에 갇혀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하여 천둥이 된다. 陰氣가 안에서 응결하여 陽氣가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 못하여 그 바깥에서 그치지 않고 회전하여 바람이 되는데, 음기를 붙여서 모두 흩어버린 후에야 멈추게 된다. 戾氣는 날리는 우박과 같은 종류이고, 隄霾는 누런 안개와 같은 종류이다. 모두 陰陽의 사악하고 바르지 못한 氣이기 때문에 우박으로 생긴 물은 더럽고 흐리며 간혹 검푸른 색을 띠기도 한다.<sup>78)</sup>

하 같음]. “或者以爲日月在天 如兩鏡相照 而地居其中 四傍皆空水也 故月中微黑之處 乃鏡中大地之影 略有形似而非真有是物也 斯言有理 足破千古之疑矣”

72) 「答權方叔辛丑 別紙」, 『密菴集』 卷6, 5ㄱ-ㄴ(173책, 125쪽). “而朱子之言曰 日月在天 如兩鏡相照 而地居其中 四傍皆空水也 故月中微黑處 乃鏡中大地之影 略有形似而非真有也 斯言足破千古之惑云云 如今且當謹守其說 不必別生意見 以取穿鑿 如何如何”

73) 같은 글, 5ㄴ(173책, 125쪽). “然朱子答張敬之書 以余襄公潮汐說爲最詳 近世韓久庵潮汐說尤精博有理 來說或近強推測 未知如何”

74) 『性理大全』 卷27, 理氣 2, 天文, 雷電, 9ㄱ-11ㄴ(1843-1848쪽); 『性理大全』 卷27, 理氣 2, 天文, 風雨雪霜露, 11ㄴ-14ㄱ(1848-1853쪽).

75) 『大戴禮記』 卷5, 曾子天圓 第58, 8ㄱ(30쪽-영인본 『四部叢刊正編』, 法人文化社 所收 『大戴禮記』의 쪽수). “陰陽之氣 各靜其所 則靜矣 偏則風 俱則雷 交則電 亂則霧 和則雨 陽氣勝則散爲雨露 陰氣勝則凝爲霜雪 陽之專氣爲雷 陰之專氣爲霰 霰電者 一氣之化也”

76) 『性理大全』 卷5, 正蒙 1, 參兩篇 第2, 15ㄴ(414쪽). “陰性凝聚 陽性發散 陰聚之 陽必散之 其勢均散 陽爲陰累 則相持爲雨而降 陰爲陽得 則飄揚爲雲而升 故雲物班布太虛者 陰爲風驅 斂聚而未散者也 凡陰氣凝聚 陽在內者不得出 則奮擊而爲雷霆 陽在外者不得入 則周旋不舍而爲風 其聚有遠近虛實 故雷風有大小暴緩 和而散 則爲霜雪雨露 不和而散 則爲戾氣隄霾 陰常散緩 受交於陽 則風雨調 寒暑正”

77) 야마다 케이지(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통나무, 1991), 318-320쪽 참조; 『朱子語類』 卷2, 理氣下, 天地下, 錢木之錄, 23쪽. “橫渠正蒙論風雷雲雨之說最分曉”

78) 『性理大全』 卷5, 正蒙 1, 參兩篇 第2, 15ㄴ-16ㄱ(414-415쪽). “朱子曰 此一段見得陰陽之情 陽氣正升

이와 같은 주자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기상 현상에 대한 권구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권구는 이슬을 ‘天地의 生氣가 축축하게 젖어서 짙어진 물방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것은 사계절의 변화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다만 태양빛을 받으면 마르게 되고, 추위를 만나면 응결하기 때문에 밤과 봄·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79)</sup> 일찍이 程頤를 비롯한 先儒들은 이슬을 金氣로 파악하였다.<sup>80)</sup> 五行相生의 원칙에 따르면 ‘金生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을 ‘天地의 生氣’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권구는 이것을 金氣가 아닌 水氣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生氣는 습하다는 사실을 방증으로 들었다.<sup>81)</sup>

바람과 불, 구름과 물은 ‘同類相感’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람은 불로부터 나오고, 불은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며, 구름은 물로부터 나오고, 물은 구름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었다.<sup>82)</sup> 이것을 음양설의 차원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 말하면 구름은 음기가 양기에 감응한 것으로, 양기가 열어져서 소진하게 되면 물에서 생기는 것이었고, 바람은 양기가 음기에 부딪친 것으로, 음기가 조화롭게 되어 그치면 불에서 생기는 것이었다.<sup>83)</sup> 구름은 땅 속에서 응취된 음기가 양기에 밀려서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었다.<sup>84)</sup> 이처럼 음기가 땅에 얹히려 양기와 감응하면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음기가 땅에서 나와 양기와 대적하면 바람이 일어난다고 보았다.<sup>85)</sup>

권구는 기본적으로 비(雨)·구름(雲)·안개(霧)·눈(雪)·우박(雹)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음양이 相交하여 두 氣가 조화로우면 비가 되고, 양기가 우세하면 구름·안개가 되며, 음기가 우세하면 눈·우박이 된다. 구름과 눈은 和氣로, 안개와 우박은 戾氣로 인식되었다.<sup>86)</sup> 구름이 음기와 양기의 조화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면 안개는 양기가 어그러

忽遇陰氣 則相持而下爲雨 蓋陽氣輕 陰氣重 故陽氣爲陰氣壓墜而下也 陰氣正升 忽遇陽氣 則助之飛騰而上爲雲也 陽氣伏於陰氣之內不得出 故爆開而爲雷也 陰氣凝結於內 陽氣欲入不得 故旋繞其外不已而爲風 至吹散陰氣盡乃已也 戾氣 飛電之類 噎霾 黃霧之類 皆陰陽邪惡不正之氣 所以雹水穢濁 或青黑色”；『朱子語類』卷99，張子書 2，黃僊錄，2534쪽. “橫渠言 陰聚之 陽必散之一段 却見得陰陽之情”；『朱子語類』卷99，張子書 2，沈僊錄，2534-2535쪽. “橫渠云 陽爲陰累 則相持爲雨而降 陽氣正升 忽遇陰氣 則相持而下爲雨 蓋陽氣輕 陰氣重 故陽氣爲陰氣壓墜而下也 陰爲陽得 則飄揚爲雲而升 陰氣正升 忽遇陽氣 則助之飛騰而上爲雲也 陰氣凝聚 陽在內者不得出 則奮擊而爲雷霆 陽氣伏於陰氣之內不得出 故爆開而爲雷也 陽在外者不得入 則周旋不舍而爲風 陰氣凝結於內 陽氣欲入不得 故旋繞其外不已而爲風 至吹散陰氣盡乃已也 和而散 則爲霜雪雨露 不和而散 則爲戾氣 噎霾 戾氣 飛電之類 噎霾 黃霧之類 皆陰陽邪惡不正之氣 所以雹水穢濁 或青黑色”

79) 「謾錄」, 『屏谷集』卷6, 5ㄴ(188책, 97쪽). “露者 天地之生氣滋潤濃滴者 不論四時晝夜皆在 但見日則晞 遇寒則凝 故惟夜及春夏有之 ”

80) 『河南程氏遺書』卷18, 伊川先生語 4, 劉元承手編, 238쪽[『二程集』(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의 쪽수]. “霜與露不同 霜 金氣 星月之氣 露亦星月之氣 看感得甚氣卽爲露 甚氣卽爲霜 如言露結爲霜 非也” ; 『朱子語類』卷100, 邵子之書, 沈僊錄, 2548쪽. “問 伊川云 露是金之氣 …”

81) 「謾錄」, 『屏谷集』卷6, 5ㄴ(188책, 97쪽). “先儒以露爲金氣 以金能生水 然自是水氣 蓋生氣本濕故也”

82) 같은 글, 5ㄴ(188책, 97쪽). “風自火出 火因風起 雲自水出 水因雲生 以類相感也”

83) 같은 글, 5ㄴ(188책, 97쪽). “雲者 陰之感於陽者也 陽氣薄則消生於水者也 風者 陽之激於陰者也 陰氣和則止生於火者也 ”

84) 같은 글, 6ㄱ(188책, 97쪽). “雲 陰之凝聚而未出地者 卻爲陽氣所驅 飄揚而飛騰”

85) 같은 글, 6ㄱ(188책, 97쪽). “陰氣伏地而爲陽所感 則雲騰 出地而與陽爲敵 則風生 ”

져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밑으로 가라앉아 흩어진 것이었다.<sup>87)</sup> 또 우박은 강한 양기가 나쁜 음기[陰沍]에 포위되어 급속하게 얼음으로 변한 것이었다.<sup>88)</sup> 본래 음이 양을 감싸면 물이 생기는 것인데, 음기가 편벽되게 강하면 조화가 깨져 응결되어 얼음이 되는 것이었다.<sup>89)</sup> 무지개(虹)는 雨氣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음양이 교감하여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양의 氣가 흩어졌다가 다시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모든 氣가 다 수렴되지 않고 남아서 질을 형성한 후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였다.<sup>90)</sup> 先儒들은 雨氣가 흩어진 것이 무지개라고 하였지만, 권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추고 있는 모든 물체는 모여서 형성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지개 역시 雨氣의 일부가 모여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sup>91)</sup>

천둥(雷霆)과 지진은 모두 음기가 왕성하여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음기가 아래에, 양기가 위에 있을 때 음기가 양기에 대항하면 왕성한 양기가 부딪쳐 천둥이 일어나고, 음기가 위에, 양기가 아래에 있을 때 음기가 양기를 억압하면 엷드린 양기가 동요하여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었다.<sup>92)</sup> 천둥이 봄·여름에, 지진이 가을·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위에, 음기가 아래에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기가 위에, 양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다.<sup>93)</sup>

권구는 이와 같이 음양설에 입각하여 각종 기상현상을 설명하면서 ‘常理’와 ‘災異’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음양이 각자의 정해진 위치를 지키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면 그것은 ‘常理’가 되고, 반대로 음양이 그 위치를 바꾸고, 고요한 것이 움직이면 그것은 ‘災異’가 된다는 것이었다.<sup>94)</sup>

이와 같은 음양의 운동은 문자 그대로 무궁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레의 앞뒤가 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는 消長·盛衰·終始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일체의 만물은 모두 이러한 음양의 운동으로부터 化生(생성·변화)하는 것이었다.<sup>95)</sup> 이러한 권구의 주장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음양 두 氣의 終始·盛衰일 뿐이다”<sup>96)</sup>라는 주자의 언급을 떠오르게 한다. 음양설에 입각한 권구의 기상현상에 대한 설

86) 같은 글, 5ㄴ-6ㄱ(188책, 97쪽). “陰陽相交 二氣調和 則爲雨 陽氣勝則爲雲霧 而雲氣和而霧氣戾 陰氣勝則爲雪雹 而雪氣和而雹氣戾”

87) 같은 글, 6ㄱ(188책, 97쪽). “若陽氣戾而不和 則沈散爲霧”

88) 같은 글, 6ㄱ(188책, 97쪽). “雹 強陽遽爲陰沍所包柱 倏然成冰”

89) 같은 글, 6ㄱ(188책, 97쪽). “陰掩陽則生水 而陰氣偏勝不和 故結而爲冰”

90) 같은 글, 6ㄱ(188책, 97쪽). “虹是雨氣 然方雨時 陰陽之氣 流布和散 及其將收 則餘殘之氣 卻未盡消 倏然聚而成質 日色斜照有光”

91) 같은 글, 6ㄱ(188책, 97쪽). “先儒以爲散了雨氣 然凡物之有形可見者 皆聚而成”

92) 같은 글, 6ㄱ-ㄴ(188책, 97쪽). “陰在下陽在上 而陰有以抗陽 則盛陽擊搏而雷發 陰在上陽在下 而陰有以壓陽 則伏陽盪撓而地震 在天爲雷霆 在地爲地震 皆陰盛所致然”

93) 같은 글, 6ㄴ(188책, 97쪽). “且春夏 陽在上而陰在下 秋冬 陰在上而陽在下 故雷霆發於春夏而地震多在秋冬”

94) 같은 글, 6ㄴ(188책, 97쪽). “陰陽順其位而動者動則爲常理 易其位而靜者動則爲災異”

95) 같은 글, 7ㄱ(188책, 98쪽). “陰陽元無頃刻齊整并立之時 那一邊長則這一邊消 此一邊重則彼一邊輕 若軒輕之互相低昂而不能止 此造化之所以無窮也 萬物皆從陰陽推盪中化生出來” ; 같은 글, 7ㄱ-ㄴ(188책, 98쪽). “陰陽盛衰 首尾相接 無有間隙 其盛處便是衰處 其終處便是始處”

명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주자의 그것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음양의 운동으로부터 일체의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 3) 月食論

자연학에 대한 권구의 논의는 대부분 종래의 그것을 부연하는 수준이었지만, 월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전통 천문학의 이론 가운데 月食에 대해서는 先儒들의 定論이 없었다는 전제 아래<sup>97)</sup> 자신의 월식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태양이 지하로 들어가면 대지가 모두 어둡게 되는 것은 땅이 중간에서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 가로막는 그림자는 멀어질수록 작아져서, 星宿가 하늘에 걸려 있는 곳에 이르면 태양빛의 가리움이 바야흐로 그치게 된다(星宿에 다다르면 가로막는 그림자가 사라지고 태양빛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달은 陰質로서 본래 태양과 별의 아래에 위치한다. 그 운행하는 躔度에 地面의 한 점 圓暈이 오히려 다하지 않은 것이 있다(그 운행하는 궤도에 땅의 그림자가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름에 태양과 달이 동일한 도수에 들어가서 달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게 되면 달은 문득 圓暈에 의해 가려져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sup>98)</sup>

위 인용문에서 ‘圓暈’의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구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하게 지구설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개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장의 전체 맥락과 논지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당시 西學에서 설명하고 있는 月蝕論=地影暗虛說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그가 당시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주자의 ‘暗虛所射’說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다. 그는 태양 가운데 암허가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지만, 태양과 달이 마주할 때 땅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암허는 달을 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배면을 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월식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당시 태양을 제외한 일체의 천체가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낸다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星辰 역시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 대하게 되는 때에는 월식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거론하였다.<sup>99)</sup> 현재로서는 권구가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평가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의 月食論이 地球說을 염두에 둔 독자적인 견해였다면 그것은 주자학적 우주론의 變奏로서 충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구는 주자학적 자연학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물론 經學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이었다. 『書傳』의 碁三百과 璿璣玉衡

96) 「傳伯拱字序」, 『朱熹集』 卷76, 3962쪽. “盈天地之間 所以爲造化者 陰陽二氣之終始盛衰而已”

97) 「謾錄」, 『屏谷集』 卷6, 9ㄱ(188책, 99쪽). “日食 先儒說已分曉 但月食未有定論”

98) 같은 글, 9ㄱ-ㄴ(188책, 99쪽). “日入地下 大地皆黑者 地在中間橫遮故也 其所遮之影 漸遠漸小 至星宿所麗處 日光方盡圓映 月是陰質 本在日星之下 其所行 躔度 地面一點圓暈 猶有未盡者 當望時 日月同入一度 而月不避日 正與相當 則月便爲圓暈所蔽 不能受日光”

99) 같은 글, 9ㄴ(188책, 99쪽). “朱夫子以爲太陽中有暗虛 月爲暗虛所射 日本外明內暗 其中固似有暗虛 然日月相望 地在正中 其暗虛似當直射 地背當中 月之爲其所射 難曉 當更思之 若以暗虛所射而無光 則星辰亦受日光而明 其與日正相當處 星辰亦當有一片地無光處 而不見有如是者 又可疑”

및 歲差說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月中黑影·潮汐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陰陽說에 입각한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독자적인 月食論의 제기 등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과정에서 권구는 종종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異論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들은 月中黑影이나 潮汐說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음양오행설의 틀 내에서 제기된 것이었고, 때문에 권구의 비판적 대안 역시 음양오행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月食論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해석될 경우 기존의 자연학 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구의 자연학과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嶺南의 학문체계는 결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들의 논의는 대부분 朱子の 견해를 定論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이 주자학적 우주론의 變奏로서 평가되는 이유이다.

#### 4. 理法天觀의 固守

권구의 우주론은 전통적인 우주론에 뿌리를 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氣의 動靜에 따라서 日月星辰을 비롯한 天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上天下地’,<sup>100)</sup> ‘天動地靜’<sup>101)</sup>이라는 전통적인 우주론의 답습이었다. 주자학의 우주론에서 하늘은 氣의 회전속도에 따라 몇 겹의 하늘로 구분되며 그 공간을 日月星辰과 같은 天體가 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渾天說의 하늘이 지닌 고체성을 부정하고 氣의 운동으로 하늘을 설명한 것이며, 무한우주론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102)</sup> 그러나 이 때의 무한우주란 관념적인 것이었고, 天體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무한우주는 아니었다. 여기에 주자학적 우주론의 ‘무한우주’로서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권구는 이러한 전통적 우주론의 구조를 좀 더 분명하게 부연하였다. 그에 따르면 天은 氣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래 形質이 없는 것이지만, 氣의 회전에 따라 日月星辰의 궤도가 생기게 된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위로 올라갈수록 氣는 가볍고 맑아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氣는 무겁고 탁해서 느려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103)</sup> 하늘의 구성을 이렇게 본다면 氣의 회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 층위를 달리하는 여러 겹의 하늘을 상상할 수 있으며, 각각의 천체는 각기 다른 속도로 운행하는 여러 겹의 하늘을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실제로 권구는 日月星辰이 氣를 타고 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마치 물건이 물 위에 떠서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 물[氣]의 흐름과 속도를 같이 하여 先後가 없는 것이 衆星이었고, 운행속도의 遲速으로 인해 先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日月五星이었던 것이다.<sup>104)</sup> 요컨대 일월성신은 스스로 움직이는

100) 같은 글, 1ㄱ-ㄴ(188책, 95쪽). “上自蒼蒼 下至地上地下而無不通貫者 天也 但日月星辰 在氣之掠過地面勁迅處 仰而可見 故對地而曰上天下地 ”

101) 같은 글, 1ㄴ(188책, 95쪽). “天常動而不靜 地常靜而不動 ”

102) 야마다 케이지(김석근 옮김), 앞의 책, 143-164쪽(하늘의 구조와 운동) 참조. 야마다는 “주자의 우주론은 그런 의미에서는 유한우주론으로서의 혼천설이 거의 무한우주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최고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172-173쪽)고 주장하였다.

103) 『謾錄』, 『屏谷集』 卷6, 5ㄱ(188책, 97쪽). “天是積氣 本無形質 然其旋轉掠過地面處 卻勁迅標纏 日月星辰躔度 正在其中 上面益輕清而飄疾 下面益重濁而遲緩 ”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속도로 운행하는 氣로 구성된 각각의 하늘에 붙어서 氣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sup>105)</sup>

권구의 생성론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인 생성론의 논리를 서양 천문학의 유입 이후 유행하고 있던 행성궤도론의 설명방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행성 궤도의 고하 문제를 설명하면서 각 천체들 사이의 차폐 현상(掩食)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권구가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된다”<sup>106)</sup>는 전통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陽은 맑고 가벼우며 陰은 무겁고 탁하기 때문에 맑고 가벼운 것이 위에 위치하고 무겁고 탁한 것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땅에서 볼 때 日月의 高下 관계는 陰陽의 성질로 설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식이 발생하는 원리는 아래에 위치한 달이 위에 있는 태양을 가리기 때문이었고, 일찍이 주자가 “그름에 해와 달이 서로 중첩된다”<sup>107)</sup>고 말한 것도 달이 태양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의미였다고 해석하였다.<sup>108)</sup>

어쨌든 이와 같은 우주구조에서 땅이 추락하지 않는 이유는 氣가 대지를 감싸면서 회전하기 때문이었다.<sup>109)</sup> 이 구조에 따르면 하늘은 땅을 중심으로 외부로 가면 갈수록 무한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권구는 회전하는 하늘의 바깥에 정지해 있는 大氣의 존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動極復靜’이라는 『太極圖說』의 생성론적 도식이 적용되었다. 결국 하늘이 우주공간에서 흩어지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안과 밖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땅과 大氣-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권구는 이것이 바로 ‘陽一陰二’의 실제적 증거라고 주장하였다.<sup>110)</sup>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비록 天地 일지라도 또한 크지 않은 것이다. 태양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 크기에 역시 한계가 있다. 하늘 바깥에는 無窮한 氣가 충만해 있는데 고요함이 그 가운데 있다. 움직이는 곳은 하늘이 되고 고요한 곳은 땅이 된다. 氣가 움직이는 곳은 바깥쪽의 고요함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외면에 감싸고 있는 고요한 사물이 없다면 어떻게 쉽없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sup>111)</sup>

104) 「答金(士一)德五論莽三百」, 『屏谷集』 卷3, 27 ㄱ(188책, 51쪽). “天是積氣 日月星辰 御氣而行 如物之浮於水 水流故物亦流 有與水並流而無先後者 衆星是也 以其有遲有速而或先或後者 日月五星是也”

105) 같은 글, 27 ㄱ(188책, 51쪽). “日月星辰 其實非自行也 乃天行也”

106) 『淮南子』 卷3, 「天文訓」, 26-27쪽[영인본 『淮南子』(上海古籍出版社, 1989)의 쪽수] “天墜未形 馮馮翼翼 洞洞瀾瀾 故曰太昭 道始於虛廓 虛廓生宇宙 宇宙生氣 氣有涯垠 清陽者 薄靡而爲天 重濁者 凝滯而爲地 清妙之合專易 重濁之凝竭難 故天先成而地後定”

107) 『朱子語類』 卷2, 理氣下, 天地下, 呂齋錄, 19-20 쪽 “月無盈闕 人看得有盈闕 蓋晦日則月與日相疊了 至初三方漸漸離開去 人在下面側看見 則其光闕 至望日則月與日正相對 人在中間正看見 則其光方圓”

108) 「謾錄」, 『屏谷集』 卷6, 9 ㄱ(188책, 99쪽). “陽清而輕 陰濁而重 輕清者在上 重濁者在下 此所以日月有高下 而且月掩日則日食 所以掩日者 以其在下也 朱子亦曰 晦日則日與月相疊 既云相疊 則月在下可知”

109) 같은 글, 2 ㄱ(188책, 95쪽). “氣至健 旋繞大地 扛得不墜”

110) 같은 글, 5 ㄱ(188책, 97쪽). “天外又是大氣 動極復靜 包住天地 天之所以縹緲不散 運轉不息者 以其內外俱靜 自有所激射 此亦陽一陰二之驗也”

111)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8 ㄴ(188책, 173쪽). “雖天地亦不大 日行一日一周 其大亦有限 天外有無窮之氣充滿 靜在其中 動處成天 靜處成地 氣之動處 被外面靜住 故動不已 若外面無靜物圍住 何緣動不息”

이처럼 內氣와 外氣를 구분하여 內氣는 운동하는 氣로, 外氣는 정지해 있으면서 內氣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sup>112)</sup> 權渠의 우주구조론은 張顯光(1554-1637)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일찍이 장현광은 大殼子와 最大元氣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우주구조를 제시한 바 있었다.<sup>113)</sup>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軀殼’의 개념은 주자로부터 제기된 것이었고<sup>114)</sup> 그것을 독창적인 스타일로 변화시킨 것이 장현광이었다면, 권구의 우주구조는 장현광의 그것에서 시사받은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sup>115)</sup> 어쨌든 권구는 주자가 軀殼이라고 말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氣가 정지해 있는 상태[氣靜]라고 해석하였다.<sup>116)</sup>

이처럼 氣의 운동을 통해 우주의 구조와 운동을 설명하는 권구의 논리적 틀은 철저하게 理氣論·陰陽五行說에 근거하고 있었다. 우주공간, 즉 太虛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氣인데,<sup>117)</sup> 그 본질은 살아있는 氣[生氣]이므로 항상 운동하고 있다.<sup>118)</sup> 氣의 운동은 ‘一動一靜’하는 것으로 잠시도 정지해 있는 때가 없다.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문득 고요해져 陰이 되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문득 움직여서 陽이 된다.<sup>119)</sup> 陰陽이라는 명칭은 動靜을 통해 수립되는 것이다.<sup>120)</sup> 이 ‘一動一靜’의 부단한 운동 원리는 ‘機自爾’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理’였다.<sup>121)</sup>

이렇듯 理의 주재 하에 진행되는 氣의 운동과정은 氣化와 形化의 반복을 통해 무궁한 조화를 이루어내게 된다.<sup>122)</sup> 氣化란 陰陽이 相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形化란 五行이 서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sup>123)</sup> 다시 말해 水火木金土라는 五行의 生成 과정은 氣化이며, 木火土金水라는 五行의 相生 과정은 形化였다.<sup>124)</sup> 그것은 선천과 후천의 상호 작용으로도 이해된다. 先天이란 ‘陰陽混成之體’,<sup>125)</sup> 또는 ‘陰陽流行之體’<sup>126)</sup>이며, 後天은 ‘五行生克之用’<sup>127)</sup>

112) 「謾錄」, 『屏谷集』 卷6, 1ㄴ(188책, 95쪽). “天常動而不靜 地常靜而不動 內氣卻爲外氣所包住 亦各自有動靜 而力量亦有限極 …”

113) 전용훈, “朝鮮中期 儒學者의 天體와 宇宙에 대한 이해 - 旅軒 張顯光(1554-1637)의 「易學圖說」과 「宇宙說」 -”, 『한국과학사학회지』 18(2) (1996), 145-151쪽 참조.

114) 『朱子語類』 卷100, 邵子之書, 周謨錄, 2548쪽. “天地無外 所謂其形有涯 而其氣無涯也 爲其氣極緊 故能扛得地住 不然 則墜矣 氣外須有軀殼甚厚 所以固此氣也”

115) 權渠가 張顯光의 주요 저작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전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慕山瑣錄」, 『屏谷集』 卷10, 附錄, 20ㄴ(188책, 179쪽). “看旅軒集易學圖說天地運氣篇曰 …”

116) 「謾錄」, 『屏谷集』 卷6, 5ㄴ(188책, 97쪽). “朱夫子以謂氣外更須有軀殼甚厚 所以固此氣云者 以此 然亦非實有軀殼 氣靜而已”

117) 같은 글, 1ㄴ(188책, 95쪽). “太虛空裏都是氣”

118) 같은 글, 1ㄴ(188책, 95쪽). “天地之間 無非生氣 生故常動”

119) 같은 글, 1ㄴ(188책, 95쪽). “一動一靜 其機自爾者 勢也 蓋氣無一刻停息 動之極則便靜而爲陰 靜之極則便動而爲陽”

120) 같은 글, 3ㄴ(188책, 96쪽). “陰陽之名 以動靜而立 故曰 動而生陽 靜而生陰”

121) 같은 글, 3ㄴ(188책, 96쪽). “然氣之有動靜而其機自爾者 理爲之主故也”

122) 같은 글, 2ㄴ(188책, 95쪽). “氣靜則成形 形動則氣行 此氣化形化之所以反覆相因而造化無窮也”

123) 같은 글, 3ㄴ(188책, 96쪽). “氣化者 陰陽相交而成 形化者 五行相嬗而生”

124) 같은 글, 3ㄴ-ㄴ(188책, 96쪽).

125) 「讀易瑣義」, 『屏谷集』 卷5, 1ㄴ(188책, 76쪽). “先天 陰陽混成之體也”

으로서 상호 體用·動靜<sup>128)</sup>관계로 규정된다. 선천은 氣化이며 후천은 形化이다. 그것은 각기 ‘火生金’과 ‘土生金’의 차이로 설명되며,<sup>129)</sup> 선천은 相生을(木生火, 火生金, 金生水, 水生木),<sup>130)</sup> 후천을 相成을 주관한다.<sup>131)</sup> 이러한 일련의 설명은 先天八卦圖와 後天八卦圖의 도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주자의 『太極圖說解』의 견해<sup>132)</sup>를 부연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天地 사이에 형체가 있는 사물은 모두 ‘五行의 質’이며, 형체가 없는 氣는 모두 ‘五行의 氣’인 것이다.<sup>133)</sup>

이처럼 氣로 이루어진 우주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天地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34)</sup> 천지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元氣는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존재한다. 결국 천지의 개벽이란 元氣의 움직임이며, 천지의 혼돈이란 元氣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의 始終이란 ‘一陰一陽’의 무궁한 과정의 하나일 뿐이었다.<sup>135)</sup> 이처럼 始終하는 천지의 전과정을 통해서 볼 때 所以然으로서의 理는 항상적으로 존재한다.<sup>136)</sup>

이상과 같은 구조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구가 설정하고 있는 理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生氣에 구비된 理로서 ‘生理’로 표현된다. 이 生理는 천지만물의 가장 본질적인 도리인 生道, 즉 仁의 바탕이 된다.<sup>137)</sup> 권구는 천지는 ‘生物’을 마음으로 삼으며, 인간은 이러한 ‘生物’의 주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곧 천지의 生道인 것이며, 천지 사이의 일체의 化化生生은 人道가 아닌 것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人道가 없어진다면 천지의 조화도 멈추게 되는 것이었다. 천지라는 자연계의 존재 여부를 人道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sup>138)</sup> 여기서 우리는 권구가 말하는 生理가 인륜도덕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仁=生道와 연결되어 있으며, 人道와 자연계의 법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126) 같은 글, 11ㄴ(188책, 81쪽). “先天 陰陽流行之體”

127) 같은 글, 1ㄱ(188책, 76쪽); 『讀易瑣義』, 『屏谷集』 卷5, 1ㄴ (188책, 81쪽). “後天 五行生克之用也”

128) 같은 글, 6ㄱ(188책, 78쪽). “先天屬動 後天屬靜”

129) 같은 글, 10ㄱ(188책, 80쪽). “先天氣化 氣化者 火生金 故先天兌乾 承離而居火王之次 後天形化 形化者 土生金 故後天兌乾 承坤而居金盛之位”

130) 같은 글, 3ㄱ(188책, 77쪽). “先天主相生”; 『讀易瑣義』, 『屏谷集』 卷5, 4ㄱ (188책, 77쪽). “先天主於生 故五行皆居方生之位”

131) 같은 글, 4ㄱ(188책, 77쪽). “後天主於成 故五行皆居方盛之位”

132) 『性理大全』 卷1, 太極圖, 26ㄴ(116쪽).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의 註: “以質而語其生之序 則曰水火木金土 而水木陽也 火金陰也 以氣而語其行之序 則曰木火土金水 而木火陽也 金水陰也”

133) 『謾錄』, 『屏谷集』 卷6, 4ㄴ(188책, 96쪽). “天地間 有形之物 皆五行之質也 無形之氣 皆五行之氣也”

134) 같은 글, 5ㄴ(188책, 97쪽). “天地亦一物 … 天地即其成形之大者耳”

135) 같은 글, 7ㄱ(188책, 98쪽). “天地亦元氣中一物 天地有終始 而元氣卻常存 天地之開闢 只是此氣之動而陽 天地之混沌 只是此氣之靜而陰 一陽一陰 往來無窮者 亦必有所以然”

136) 같은 글, 9ㄱ-ㄴ(188책, 99쪽). “未有人物之時 理在天地 則在天地之理 即所以生人物之理也 未有天地之時 理在元氣 則在元氣之理 即所以生天地之理也 從天地人物有形後推上去 則却似理先而氣後 從氣上看 則却無先後”

137) 같은 글, 10ㄱ-ㄴ(188책, 99쪽). “盈於太虛者氣 而氣是生氣 具於此氣者理 而理是生理也 稟此生氣而爲形 受此生理而爲性 則大而天地 小而人物 而微草木禽獸 何莫非生道也 此仁所以至大無外而爲四德之首也”

보게된다.

다음으로 理는 ‘當然의 이치’이기도 했다. 모든 사물은 태어날 때 바꿀 수 없는 當然의 원칙을 타고나는데 그것이 바로 理라는 것이다.<sup>139)</sup> 권구는 천지 사이의 모든 사물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天叙·天秩이 있다고 간주하였다.<sup>140)</sup> 그것은 일종의 질서 관념이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각각에 부여된 질서에 합당하게 운동·생활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 한정시켜 본다면 動靜語默과 酬酢萬變이라고 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私意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 天理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다워질 수 없다고 단정한다.<sup>141)</sup> 中世的 理法天觀의 구조가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구는 자연학의 탐구를 윤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학문체계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문의 목적은 인륜을 밝히는 것인데, 인륜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物理’에 밝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42)</sup> 결국 물리의 탐구라고 하는 것이 인륜을 밝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객관적인 자연법칙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 탐구의 범위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과 같은 권구의 발언은 그의 사유체계 속에서 자연학과 인간학이 이기론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은 天地의 氣를 받아 형체를 이루고, 天地의 理를 부여받아 性으로 삼는다. 理의 微妙함과 氣의 虛靈함으로 한 몸의 主宰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心]이니, 이 마음이 곧 天地의 마음이며, 내가 또한 하늘이고 하늘도 또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3)</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의 구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理氣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대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144)</sup> 심성을 위주로 한 인간학의 탐구와 물리의 해명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주자학적 자연학의 담론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상의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道理로부터 物理를, 나아가 人間學으로부터 自然學을 自立化시킬 필요가 있었다.

138) 『韓久庵撰著辨疑義』, 『屏谷集』 卷6, 30 ㄴ(188책, 109쪽). “天地以生物爲心 而人爲生物之主 人者 天地之生道也 天地間變化生生 何莫非人道也 無人道則天地之化息矣 既有天地 則便有人道 …”

139) 『謾錄』, 『屏谷集』 卷6, 11 ㄴ(188책, 100쪽). “物之已生 必有當然而不可易者 理也 ”

140) 같은 글, 12 ㄴ(188책, 100쪽). “天地之間 無物無敘 無物無秩 敘者先後之次 秩者彼此之別”

141) 같은 글, 12 ㄴ(188책, 100쪽). “此身之有動靜語默 酬酢萬變者 是孰使之然哉 莫非自然之天 而各有其理 非我所能私也 此所以一爲私意所梏 則違天悖理而人不得爲人矣”

142) 같은 글, 13 ㄴ(188책, 101쪽). “學只是明人倫 欲明人倫 當分別善惡 欲分別善惡 當明物理 欲明物理 當存此心 …”

143) 『心說四』, 『屏谷集』 卷6, 19 ㄴ(188책, 104쪽). “夫人受天地之氣以爲形 稟天地之理以爲性 而理妙氣靈 主宰一身者心 則此心之爲天地之心 而我亦天天亦我者 可知也 廣大者天而此心與之廣大 其可以形氣之私局而小之哉 ”

144) 『心性道器』, 『屏谷集』 卷6, 24 ㄴ(188책, 106쪽). “人之一身 氣以成形 理因含具 氣靈理妙 相涵而有知覺 故心字本兼理氣立名 ”

## 5. 맺음말

權渠는 18세기 전반 嶺南南人 계열에서 李裁와 함께 학문적·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嶺南의 학맥 가운데서 李玄逸로 대표되는 金誠一 계열과 柳元之로 대표되는 柳成龍 계열에 가계상으로 뿐만 아니라, 학통상으로도 닿아 있었다. 권구는 嶺南 상수학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李玄逸 계열과 柳元之 계열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상수학 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일환으로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전개하였다.

권구의 학문적 중심은 理學이었다. 그러나 형상이 없는 理를 파악하기 위해서 氣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바로 形象과 數를 갖추고 있는 氣에 대한 공부, 즉 象數學이었다. 따라서 권구의 상수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氣화와 形화로 이루어지는 현상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所以然으로서의 理—의 탐구였다. 이와 같은 그의 상수학은 朱子の 『易學啓蒙』에 근거하는 것으로 주자학적 상수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는 정치적 소외 상태에서 진행된 영남의 상수학 연구가 현상 타개의 적극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고, 종래의 象數學의 圖象을 自然의 法象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침잠하는 소극적·퇴행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상수학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권구의 自然學 전반의 내용과도 연결된다. 그는 碁三百과 璿璣玉衡을 비롯하여 주자학적 자연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碁三百과 璿璣玉衡, 그리고 歲差說의 경우 『書傳』 주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논설은 주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다만 月中黑影, 潮汐, 氣象學 및 月食論에 대해서는 종래와 다른 견해를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陰陽五行說의 설명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음양오행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도 하였다. 月食論의 경우 先儒들의 定論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定論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묵수하고, 정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학문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嶺南의 自然學을 朱子學的 自然學의 變奏로 평가하게 하는 이유이다.

권구의 우주론은 전통적인 우주론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하늘을 氣의 무한한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운동이 가능한 이유를 중심의 땅과 바깥의 무한한 氣가 지탱해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太極圖說』의 생성론적 도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氣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天地는 일반 사물과 마찬가지로 생성·소멸의 과정을 밟게 되며, 오직 ‘一動一靜’하는 陰陽의 운동을 주재하는 理만이 영원불멸한 존재였다. 이처럼 理를 궁극적인 근원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구의 우주론은 ‘理法天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권구가 설정하고 있는 理의 성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理를 生理이면서 當然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當然의 원칙이란 인간·사회의 윤리·도덕적 질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지자연의 이법과 인간·사회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理法天觀의 기본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권구의 상수학과 자연학은 근본적으로 주자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朱子를 聖人으로서 간주하고, 朱子가 제시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학문적 진리를 획득하며[自得],

그를 통해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의 현실 모순을 타개하고자 했던 嶺南 계열 正統 朱子學者들의 학문적 자세와 지향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전개되는 자연학 역시 순수하게 物理를 탐구하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재할 수 없었다. 理氣論과 陰陽五行說을 매개로 인간·사회·자연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구조 속에서 物理는 道理·倫理와의 연관 관계로 설명되었다. 조선후기 정통 주자학 계열에서 진행된 자연학 논의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주자학적 자연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들을 수용·절충하여 새로운 과학적 담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세적 자연학과 理法天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이들 정통 주자학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학문 연구를 진행했던 일군의 학자들—이른바 ‘實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